

滄江 金澤榮의 歷史敘述

金 項 允

目 次

- | | |
|--------------|---------------|
| I. 序 言 | 3. 韓國歷代小史 |
| II. 滄江의 歷史敘述 | 4. 其他의 史書 |
| 1. 歷史輯略 | III. 滄江의 歷史認識 |
| 2. 韓史纂 | IV. 結 語 |

I. 序 言

滄江 金澤榮(1850~1927)은 우리 나라 역사상 가장 격심한 변화와 시련의 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당시의 한국 사회는 봉건사회의 급속한 붕괴, 근대화를 향한 진동, 그리고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滄江은 전통적인 漢式敎育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시기의 대표적인 文人이자 歷史家였다.

金澤榮은 1850년(哲宗 원년) 開城府 分監役 金益福의 둘째 아들로 개성에서 태어났다. 그의 字는 于霖, 號는 滄江, 雲山 또는 韶護堂主人, 本貫은 花開이다. 시조인 文節公 金勳은 晉陽人으로 金庚信의 후예이며 高麗 恭愍王代에 벼슬하여 太子詹事에까지 이르렀으나 고려의 멸망 후 고려의 遺民으로서 朝鮮 왕조에 벼슬하지 않고 개성에 은거하면서 절의를 굳게 지켰다.¹⁾ 이로부터 창강의 선조들은 개성에 살면서 드물게는 末職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로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였으며 조선조 중엽 이후에는 蓼業에 종사하였다. 이들이 대대로 가지고 있었던 고려의 후예라는 강한 遺民意識은 창강에게도 계승되었으며 그의 사상과 저술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창강의 생애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1기는 甲午改革 이전까지의 成長·修學·交遊期, 제2기는 甲午改革 이후로부터 乙巳條約 체결 이전까지의 宦歷期, 그리고 제3기는 乙巳條約

1) 「金氏史補」高麗金詹事本傳(金澤榮全集 卷5 所收)에는 그를 鄭夢周·趙狷과 함께 麗季三絶로 稱한다고 하였다.

金澤榮全集은 1978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全 6卷으로 간행되었다.

체결 후의 中國亡命期이다.

개성에서 성장한 창강은 부친의 헌신적인 후원으로 학문에 힘써 17세 때에는 처음으로 成均試 初試에 합격하였으며 이후에도 여러차례 초시에 합격하였으나 覆試에서는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²⁾ 과거에 실패한 후에는 古文에 심취하여 특히 明 震川 歸有光의 문장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24세 때에는 이미 文名을 날리고 있던 李建昌이 창강의 시를 보고 크게 칭찬함으로써 이로부터 그의 이름이 당시의 高官과 士類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³⁾ 李建昌과의 인연으로 서울에 자주 왕래하게 되면서 창강은 黃玟·姜韋·金允植 등과 交遊하게 되었으며 특히 金允植을 통해서는 吳長慶 휘하의 중국인 張聶·張壽 형제와 친교를 맺게 되었는데 이들 張氏 형제는 후일 창강의 망명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文名에 비하여 官運이 없었던 창강은 42세가 되던 1891년에야 비로소 成均進士 會試에 나가게 되었으며, 1894년 甲午改革 후 總理大臣 金弘集에게 발탁되어 學部 編史局 主事に 임명됨으로써 처음으로 관직을 얻게 되었다. 1895년에는 中樞院 參書官 겸 內閣記錄局 史籍科長으로 승진하였으나 다음해에는 學部大臣 申箕善의 「儒學經緯」에 서문을 쓴 일로 하여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하였다. 그 후 다시 복직하여 1902년 惠民院 主事, 1903년 弘文館 文獻備考 續撰委員, 1905년 學部 編輯委員 등을 역임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하자 관직을 물러났으며 결국 중국으로의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⁴⁾

중국으로 망명한 창강은 앞서의 張氏 형제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였는데, 그들이 설립한 通州의 翰墨林書局에서 校書의 일을 보면서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는 한편 우리 나라 역사를 저술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는 중에 1909년에는 국사 저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일시 귀국하기도 하였다.⁵⁾ 1910년 조국이 일제에 의해 합병당하였다는 비보를 듣고는 嗚呼賦를 지어 망국의 한을 토로하였던 창강은 그 후에도 많은 저술을 남겨 문장으로 보국하겠다는 그의 일념을 지켰으나 1927년 77세를 일기로 끝내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중국 통주에서 그 일생을 마쳤다.⁶⁾

이와 같이 격동과 시련의 시기를 살면서 민족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하였던 창강은 韓末의 대표적 문인으로 알려진 것에 못지않게 역사가로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고려의 후예로서의 강렬한 유민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의 역사에 대한 남다른 관심은 일찌기 없었던 민족적 시련기를 맞아 국가와 민족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승화되어 역사서를 통한 民族文化遺産의 보존과 自主·自強意識의 고취라는 목적하에 많은 역사서를 저술하게 되었다.

국내와 망명지에서의 창강의 역사 서술과 거기에 나타난 역사 인식에 대한 고찰은 창강의 사학적

2) 滄江의 계속적인 科擧 실패는 당시 科擧制 운영의 문란상이나 그가 開城 출신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滄江先生實紀」自製墓誌銘(金澤榮全集 卷6 所收), p. 700.

4) 前掲, 「滄江先生實紀」遺事, p. 695.

5) 黃玟, 「梅泉野錄」卷6, 隆熙 3年 己酉條.

前參書金澤榮 自通州東還...澤榮素有刪述國朝史之意 而本國則有忌諱 中國又無考據 故欲因請邀一還故國 衰聚史乘而去.

6) 滄江의 생애에 대해서는 金澤榮全集의 「合刊詔獲堂文集」·「金氏史補」·「滄江先生實紀」를 주로 참고하였다.

성격과 그 사학사적 위치를 밝히고, 나아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그에 대한 지식인들의 대응 자세를 이해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창강에 관한 기왕의 연구 성과⁷⁾를 토대로 하여 역사가로서의 창강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 및 그 사학사적 위치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滄江의 歷史敘述

朴燕巖 이후 우리 나라 최후의 漢學의 대문호로 평가되기도 하는⁸⁾ 창강은 그러한 평가에 부족함이 없는 다수의 뛰어난 詩文을 남겼다. 한편 通史·志·傳記類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 그의 역사 저술 역시 많은 분량에 달한다. 그 중 通史類에 해당하는 것만도 「東史輯略」(1902년), 「歷史輯略」(1905년), 「韓史纂」(1913·1918년), 「韓國歷代小史」(1915·1922년) 등이 있으며, 1899년 學部 명의로 발간된 「東國歷代史略」과 「大韓歷代史略」의 편찬에도 깊이 관여하였다.⁹⁾

이 장에서는 먼저 창강의 역사 저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歷史輯略」, 「韓史纂」, 「韓國歷代小史」에 대하여 그 서술 경위 및 동기, 내용 구성 및 체재, 내용상의 특징 등을 살펴 보고 이어서 그 밖의 사서들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歷史輯略

1) 敘述經緯 및 動機

창강은 1894년 編史局 主事に 임명되어 學部에 근무하면서 교과서 편찬에 참여하여 「東國歷代史略」, 「大韓歷代史略」의 편찬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저술, 간행한 것이 「東史輯略」이며, 여기에 다시 玄采의 권고를 받아¹⁰⁾ 수정, 보완한 것이 「歷史輯略」이다.

창강 저서의 결정판이며, 개혁기 역사서 가운데 대표적인 것¹¹⁾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는 「歷史

7) 滄江에 대한 주요 연구로는 金麗化의 開化期國史教科書를 통해서 본 歷史認識(史學志 14, 1980)과 崔惠珠의 滄江 金澤榮 研究(韓國史研究 35, 1981)가 있으며, 다음의 연구에도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① 權五惇,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滄江과 雲養을 中心으로-(人文科學 5, 1960).
- ② 金成俊, 舊韓末의 國史教育에 對하여(大東文化研究 8, 1971).
- ③ 金約瑟, 滄江先生實紀에 對하여(書誌學 3, 1970).
- ④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知性 5, 1972).
- ⑤ 金興洙, 韓末의 國史教科書 編纂(歷史教育 33, 1983).

8) 權五惇, 前掲, 近朝의 漢文學에 對한 一考察, p. 50.

9) 金麗化, 前掲, 開化期國史教科書를 통해서 본 歷史認識, p. 121.

10) 金澤榮, 「歷史輯略」自序(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國史篇 卷5 所收) p. 7.

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 國史篇은 1977년 亞細亞文化社에서 全 10卷으로 간행되었다.

11) 金容燮, 前掲,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李佑成·姜萬吉編, 韓國의 歷史認識 下, 1976에 再收錄), p. 425.

輯略」의 서술 동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初學者를 위한 史略型의 本國史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²⁾

둘째, 역사 기록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던¹³⁾ 창강이 자주 자강을 위해서 역사를 통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많은 나라들이 다투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이름을 높이려하는 천하 대세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여¹⁴⁾ 自國史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사를 비롯한 외국사에 앞서 自國史를 익힘으로써 “遠驚近墻之病”을 없이해야 한다는¹⁵⁾ 學部大臣 李載克의 序에도 잘 나타나 있다.

2) 內容構成 및 體裁

「歷史輯略」은 단군 조선으로부터 고려말까지의 역사를 도합 11권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檀君朝鮮紀(卷1), 箕子朝鮮紀·馬韓紀(卷2), 新羅·高句麗·百濟紀(卷3·4), 統一新羅紀(卷5), 高麗紀(卷6~11)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本書의 引用書目에는 중요한 인용서로서 「三國遺事」·「東史古記」·「三國史」·「高麗史」·「東國通鑑」·「麗史提綱」·「東史綱目」·「疆域考」·「東史世家」·「四郡志」·「渤海考」·「文獻備考」·「燕巖集」·「中京誌」·「國史略」 등의 사서가 열거되어 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史論은 총 188편이 실려있다. “按”字를 서두에 붙이거나, 先學者의 사론이나 사실을 인용하고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대부분인 본서의 사론을 왕조별로 나누어보면 단군 조선에 4편, 기자 조선에 14편, 마한에 40편, 삼국에 71편, 통일 신라에 35편, 고려에 24편 등이다.

서술 체재는 왕조사 중심의 編年體 서술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역사 서술의 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서 기사의 중복을 피하면서 연대순으로 정연하게 서술할 수 있는 반면에, 사회의 발전 과정이나 제국주의의 침략 과정이 인과 관계에 있어 과학적으로 서술되기 어려움¹⁶⁾ 즉, 사실을 종합적으로 파악·서술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編年體를 택한 까닭은 이 시기의 역사서들이 대개 그러하였듯이 민족적 시련기를 맞아 역사서를 통한 자주·자강의식의 고취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쉽게 널리 읽힐 수 있는 史略型의 編年體로 서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年紀는 대체로 우리 나라의 것을 먼저 쓰고 중국의 것을 附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단군 조선에서는 紀事文 중간에 중국 연기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자

12) 「歷史輯略」, 原序, p. 8.

13) 「合刊韶慶堂文集」卷3, 明美堂集序(金澤榮全集 卷1 所收), p. 524.

自古人國 未嘗不亡 而于亡之中 有不盡亡者所其文獻也 然則委巷幹士官府小吏之所記錄 皆足爲亡國之遺寶.

14) 「歷史輯略」, 自序, p. 7.

今之天下 非古之天下也 環匝大塊 其國百數 各誇其雄 各尊其名.

15) 「歷史輯略」, 序, p. 4.

16) 金容燮, 前掲,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 p. 426.

조선과 마한에서는 紀事文 머리에 간지(細字), 한국 연기(大字) 다음에 중국 연기를 細字로 쓰고 있다. 삼국 시대는 신라 시조로부터 마한 멸망까지는 간지(細字), 마한 연기(大字), 삼국 및 중국 연기(細字)의 순서로, 마한 멸망 후로부터 文武王 7년까지는 간지, 삼국 연기, 중국 연기를 모두 細字로 쓰고 있다. 그리고 文武王 8년 이후의 통일 신라와 고려는 간지(細字), 한국 연기(大字), 중국 연기(細字)로 쓰고 있다.

3) 內容上의 特徵

「歷史輯略」의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檀君朝鮮紀로부터 우리 역사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新羅僧 無函이 지은 「東史古記」의 내용을 요약, 수정하였다고 하는 그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史論을 제외하면 200字에도 미치지 못하는 분량이다. 이것은 창강이 단군에 관한 기록을 開國神話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佛僧들에 의해 쓰여진 괴이하고 허망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크게 삭제한 결과이다.¹⁷⁾

둘째, 箕子朝鮮紀에서는 鮮于氏의 「先王遺事記」와 韓·奇氏 양가의 족보를 근거로 하여¹⁸⁾ 기사로부터 시작되는 世系를 밝히고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馬韓紀 역시 역대 왕의 世系를 상세히 밝히고 있으며, 삼국 초기의 역사를 마한에 예속된 역사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駕洛國에 대해서는 凡例에서 삼국이 본래 無統이며 가락국이 다른 나라에 臣服한 일이 없으므로 삼국과 대등하게 기록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건국 과정, 6가야의 구성, 위치, 가야금 등을 중심으로¹⁹⁾ 간략한 기사를 삼국에 附記하고 있는 정도이다.

넷째, 渤海國의 역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統一新羅紀에 附記되어 있기는 하지만 중국·일본의 사서로부터 널리 자료를 구하여 서술하였으며, 統一新羅紀에 실린 35편의 사론 가운데 20편 이상이 발해에 관련된 것일 정도로 중시하고 있다.²⁰⁾

다섯째, 日本史로부터 많은 역사적 사실을 인용하고 있다. 임나 문제를 비롯하여 일본의 고대문자, 한·일간의 외교 문제 등에 집중되고 있는 일본사로부터의 자료 인용은 역사적 시야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일본측 기록의 무비판적인 수용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²¹⁾

여섯째, 高麗末의 禑王·昌王에 대해서는 廢王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廢王 禑가 辛屯의 婢 所生인 것으로 明記하고 있다.²²⁾ 또한 禑·昌·恭讓王 3대의 기사는 매우 간략할 뿐만 아니라 朝鮮의 太祖 李成桂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볼 때에 크게 공정성을 잃고 있다.

일곱째, 史論은 상고 및 고대사에 집중되고 있으며(164편), 고려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24편)의 사론이 있을 뿐이다. 사론의 내용은 地志에 관한 것이 가장 많으며 역사적 사실의 眞否를 논증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서, 실제로 丁若鏞, 柳得恭 등 실학자들의 사론이 다수 인용되고 있다.

17) 「歷史輯略」卷1, 檀君朝鮮紀, pp. 19~20.

18) 「歷史輯略」卷2, 箕子朝鮮紀, p. 23.

19) 「歷史輯略」卷3, 三國紀, pp. 89~90.

20) 高麗紀에 실린 24편의 사론 중에서는 5편 정도가 渤海國과 관련되는 것이다.

21) 任那日本府說을 일본측의 기록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22) 「歷史輯略」卷11, 高麗紀, p. 523.

2. 韓史繫

1) 叙述經緯 및 動機

「韓史繫」은 1913년 창강이 중국 通州에서 亡國의 한을 달래며 저술한 朝鮮時代史로서 韓史는 朝鮮史를 가리키며, 繫은 肯綮의 준말로 요점, 급소를 뜻하는 말이다. 이 때에 쓰여진 「韓史繫」은 「大東紀年」·「國朝人物考」·「梅泉野錄」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燃藜室記述」·「黨議通略」·「山南徵信錄」과 기타의 자료를 보충하여²³⁾ 再述 「韓史繫」을 완성하였는데 이는 1918년 翰墨林書局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창강이 「韓史繫」을 저술하게 된 동기는 그가 1913년에 쓴 序文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淮南에 머무른지 2년 만에 영국인 헐버트트가 간행한 「大東紀年」을 보고 스스로 생각한 바가 있었다.

둘째, 일찌기 韓의 史官이 된지 3년 만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물러난 죄가 있는데 「韓史繫」을 저술함으로써 혹시 前罪를 갚을 수 있을까 한다.

셋째, 韓의 역사는 燕山朝의 史獄의 참화로부터 史筆이 꺾였으며, 英祖 이후로는 奎章閣의 「日省錄」이 있으나 단지 朝報를 기록하는데 그쳐 마침내 無史之國이 되었다.

네째, 世間에 혹 한 두가지 기록이 있으나 크게 미흡하여 장차 5백년 동안의 일체의 史跡이 인멸되게 되었으니 袖手安坐할 수 없는 일이다.

다섯째, 韓은 중세이래로 四黨이 분립함으로써 紛紜錯亂하여 매사에 공정치 못하였기에, 스스로 四黨之中에 빠지지 않고 是非之本心을 보전하여 長短善惡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 등이다.

2) 內容構成 및 體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韓史繫」의 韓史는 朝鮮史를 가리키는 것으로 창강은 “韓”을 넓게는 우리 나라의 가장 오랜 국호이자 민족의 명칭으로 파악하였으며,²⁵⁾ 좁게는 大韓帝國을 포함한 朝鮮의 국호로 파악하였다.²⁶⁾ 「韓史繫」은 朝鮮 太祖로부터 讓帝(純宗)까지의 23王·2帝·2廢主 도합 519년의 역사를 6권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창강은 책의 분량이 적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이름하였다.²⁷⁾ 그 내용은 太祖~燕山主(卷1), 中宗~宣祖上(卷2), 宣祖下~孝宗(卷3), 顯宗~英祖(卷4), 正祖~太上皇上(卷5), 太上皇下~讓帝(卷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引用書로는 「大東紀年」·「國朝人物考」·「梅泉野錄」·「燃藜室記述」·「黨議通略」·「山南徵信

23) 「台刊韶獲堂文集」卷6, 韓史繫跋(金澤榮全集 卷2 所收), pp. 28~29.

24) 金澤榮, 「韓史繫」, 序(金澤榮全集 卷5 所收), pp. 3~4.

25) 「歷史輯略」卷2, 箕子朝鮮紀, p. 24.

26) 滄江은 중국에서의 망명기간 동안에는 특히 朝鮮보다 韓의 칭호를 즐겨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韓史繫」은 매 卷頭に 자신이 韓의 遺民임을 밝히고 있고, 「韓國歷代小史」에도 韓人이 著者임을 明記하고 있다.

27) 「韓史繫」, 序, p. 3.

書既成 名曰韓史繫 以爲是數卷者 不足以爲史 而乃若其要 則猶人身之有肯綮云.

錄」·「日本外史」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燃藜室記述」 이후의 것은 再述하는 과정에서 보충된 것이다.²⁸⁾

史論은 “論曰”을 서두에 붙이고 있는데 총 50편의 사론이 실려있다. 역사적 사실의 眞否를 논증하는데 치중한 「歷史輯略」의 사론에 비하여 주관적(도덕적·교훈적)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本書의 사론은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韓史纂」의 서술 체재는 「歷史輯略」과 마찬가지로 編年體이며, 年紀 역시 간지와 우리 나라 연기 다음에 중국 연기를 附記하였다. 우리 나라 연기에서 두드러진 점은 乙未年(1895년)에는 開國 年호를 썼으며, 이 이후 建陽·光武·隆熙의 年호를 쓰고 있다. 중국 연기에서는 1644년 明의 멸망 후에도 南明의 연기를 쓰고, 淸 世祖 順治 18년 이후부터야 淸의 연기를 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3) 內容上의 特徵

「韓史纂」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太祖紀의 서문에 「殺二王 篡恭讓王位」²⁹⁾라고 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太宗·世祖·成宗·宣祖·英祖 등 조선 역대의 국왕들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³⁰⁾ 그리고 이것은 종래의 다른 어떤 史書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신랄한 것이다.

둘째, 경제 문제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실학자들의 경제사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이러한 경제에 대한 관심은 崔益鎔·洪在鶴 등의 상소에 대하여 사론에서 이들 두 사람이 경제 문제에 대한 식견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³¹⁾

셋째, 黨爭에 대해서는 그 기원으로부터 경과, 폐단에 이르기까지 매우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문에서도 이미 四黨分立을 크게 개탄하였던³²⁾ 창강은 당쟁과 그에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시비를 분명히 밝히고자 하였다.

네째, 韓末 의병의 봉기, 일제의 침략 과정 등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安重根 의사의 의거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있다. 즉, 安義士의 의거 동기, 경과, 재판과정에서의 행적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계속되는 사론에서도 그의 의거를 격찬하고 있다.³³⁾

28) 同註23).

29) 「韓史纂」卷1, 太祖紀, p. 11.

30) 주로 史論을 통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 것만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太宗紀: 太宗聽一怪鬼之言 視爲典常 遂以至於綱一世之庶子 不亦過乎.

② 世祖紀: 世祖之殺姪殺諸弟 以盜君位 萬世之大惡也.

③ 成宗紀: 自成宗禁改嫁以來 四百年之間 婦女之喪夫殺身者 無慮數百千人 可謂禮義之俗也 然而在亂之風 未嘗盡絕.

④ 宣祖紀: 旋軫舊京 四五年之間 頓忘舜臣之功 一朝惑於敵人之奸計……宣祖之不明不弘如此.

⑤ 英祖紀: 父子天倫之首也 英祖之殺世子 是誠何心……英祖是時 年不過六十八歲 非婚毫不省人事之時 而惑於小人 以自陷於萬世之大惡何也.

31) 「韓史纂」卷5, 太上皇紀, p. 280, 293.

32) 同註24).

33) 「韓史纂」卷6, 讓帝紀, pp. 348~352.

重根尤壯矣 摧折天下巨雄 身雖死 志則遂天下之人之震動也.

다섯째, 卷尾에는 本書에 실린 各黨人 姓名의 개략을 싣고 있는데, 金孝元·沈義謙 이하 총 348명의 성명을 東人·西人·南人·大北·小北·老論·少論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³⁴⁾

3. 韓國歷代小史

1) 叙述經緯 및 動機

1909년 망명지 중국으로부터 일시 귀국했던 창강은 廣開土大王碑文과 渤海國 관계 자료를 입수하였으며, 通州로 돌아간 후에는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일찌기 學部에서 간행된 「歷史輯略」을 보충하였다.³⁵⁾ 여기에 1913년에 완성한 初述 「韓史纂」을 합하여 1915년에 완성한 것이 「韓國歷代小史」이다. 이 책은 다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1922년 翰墨林書局에서 간행되었다.

本書는 이와 같이 「歷史輯略」과 「韓史纂」을 합하여 완성한 것이기 때문에 서술의 동기도 비슷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수정과 보완을 해가면서 「韓國歷代小史」를 완성한 것은 檀君朝鮮으로부터 韓末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민족의 역사를 오래도록 보존하고 민족의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하는 절실한 심정에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本書의 例言(凡例)에서는 서술의 방향을 밝힘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서술의 동기를 짐작하게 하고 있다. 例言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³⁶⁾

첫째, 檀君·箕子 이하 여러 나라의 역사를 韓史의 위에 붙어 「韓國歷代小史」라고 한 것은 韓의 遺民이 쓴 것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둘째, 「東國通鑑」의 三國紀는 駕洛國의 역사를 강등해서 기술하였는데, 삼국이 원래 無統이고 駕洛이 일찌기 다른 나라에 臣服한 일이 없으므로 대등하게 기록한다.

세째, 근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삼국시대에 踰年稱元法을 사용하였으나 前史의 예에 따라서 先王薨年으로 稱元한다.

네째, 渤海國의 역사는 우리나라에서 소홀히 다루어졌으므로 중국사 및 일본사에서 크고 작은 자료를 모두 뽑아 기록하여 一代의 全史에 당하게 한다.

다섯째, 韓代史가 高麗 이상의 역사보다 상세한 것은 撰者가 韓人이기 때문이니 양해를 바란다.

여섯째, 韓史를 읽는 사람이 四黨人의 성명을 알지 못하면 일의 曲折을 알 수 없으므로 그 성명의 개략을 附記한다.

2) 內容構成 및 體裁

「韓國歷代小史」는 檀君朝鮮으로부터 朝鮮朝 讓帝(純宗)까지의 역사를 총 28권 9책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 내용은 檀氏朝鮮紀(卷1), 箕氏朝鮮紀(卷2), 箕氏馬韓紀(卷3), 三國紀(卷4~7), 新羅紀(卷8,9), 高麗紀(卷10~16), 韓紀(卷17~18)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引用書는 「古記」·「先王遺事記」·「三國史」를 비롯한 총 26종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26종의 인

34) 「韓史纂」, 四黨姓名概略, pp. 357~360.

35) 「合刊韶獲堂文集」卷6, 自題韓國歷代小史後(金澤榮全集 卷2 所收), pp. 23~24.

36) 金澤榮, 「韓國歷代小史」, 例言(金澤榮全集 卷3 所收), pp. 13~16.

용서는 「歷史輯略」과 「韓史纂」의 인용서에 비하여 6종이 더 많다. 그 중의 일부는 1909년 귀국했을 때 입수하여 보충한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高句麗永樂大王碑가 주목된다.

史論은 「歷史輯略」과 마찬가지로 “按”을 서두에 붙이거나, 先學者의 사론이나 사실을 인용한 후 자신의 견해를 첨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사론의 총 수와 내용은 약간의 증감은 있으나 「歷史輯略」·「韓史纂」과 대체로 비슷하므로 생략한다.

왕조 중심의 編年體 서술 및 한국 연기를 중심으로 중국 연기를 附記한 年紀의 형식도 앞의 두 사서와 大同小異하다.

3) 內容上的 特徵

「韓國歷代小史」가 고려 이전은 「歷史輯略」, 조선은 「韓史纂」을 대본으로 하여 쓰여졌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도 앞의 두 사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려 이전, 특히 통일신라 이전의 기사는 1909년 창강이 일시 귀국하였을 때 새로이 입수한 자료를 이용하여 수정, 보완한 관계로 조선시대의 기사에 비하여 증감이 많다.

「韓國歷代小史」의 내용이 앞서의 두 史書에 비하여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凡例에서도 언급하였듯이 三國紀와 新羅紀의 踰年稱元法에 따른 年紀를 모두 先王薨年稱元(即位年稱元)의 예에 따라 고쳐 기록하였다.

둘째, 고구려가 평양으로 移都하였다고 생각한 東川王 21년 이후의 역사만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그 이전은 濊種이라 하여 年紀 표시에 고구려를 제외시켰다.³⁷⁾ 그러나 東川王 21년 이전이라도 고구려 관계 기사는 실고 있다.

세째, 廣開土大王의 碑文을 사료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本書의 三國紀 廣開土王 元年條에는 사론에 碑의 위치·형상·발견 경위와 함께 碑의 全文을 실고 있다.³⁸⁾ 창강은 이 廣開土大王碑의 碑文에 의거하여 三國紀의 紀年을 바로 잡고, 후일 金富軾의 「三國史記」를 교정하는 등 중요한 사료로 활용하였다.

네째, 高麗末 廢王 禑 이후의 기사는 朝鮮 太祖 李成桂 중심에서 탈피하고, 廢王 禑를 恭愍王의 아들로 고쳐 기록하는 등³⁹⁾ 「歷史輯略」에서 크게 잃고 있었던 公正性을 회복하였다.

4. 其他의 史書

창강의 역사 관계 저술로는 이제까지 살펴본 「歷史輯略」·「韓史纂」·「韓國歷代小史」 이외에도 「校正 三國史記」·「新高麗史」라든지 「崧陽耆舊傳」·「重編韓代崧陽耆舊傳」 등의 傳記類, 「紅蔘志」, 花開 金氏의 家系를 밝힌 「金氏史補」 등 다수가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역사서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큰 「校正 三國史記」와 傳記類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37) 「韓國歷代小史」 卷3, 箕氏馬韓紀, pp. 90~91.

38) 「韓國歷代小史」 卷5, 三國紀, pp. 189~199.

39) 「韓國歷代小史」 卷15, 高麗廢王紀(金澤榮全集 卷4 所收), p. 35.

1) 校正 三國史記

창강이 「三國史記」를 校正하게 된 것은 光武帝의 庚子(1901년)·辛丑(1902년) 年間に 承旨 金敎獻 으로부터 「三國史記」를 빌려보고 板刻에 틀린 곳이 많음을 알아 그것을 校正·重刊할 것을 논의한 데서 비롯한다.⁴⁰⁾ 그러나 실제의 교정 작업은 그 훨씬 후인 중국 망명 후에야 완성되었다.

교정을 담당한 사람은 金澤榮·王性淳·河謙鎭·黃瑗·李炯·河益鎭 등이며, 간행에 참여한 사람은 尹炳文·權鳳鉉 등 43인이다. 간행 시기는 1916년에 쓴 李繼晬와 河謙鎭의 서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쯤으로 생각된다.

「三國史記」의 교정 동기를 살펴보면

첫째, 字句의 脫亡으로 문맥이 통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崔南善이 간행한 「三國史記」의 卷頭에 權近과 徐居正의 「三國史記」에 대한 부당한 貶書가 실려 있어 그를 바르게 고치고자 한다.⁴¹⁾

둘째, 「韓國歷代小史」에서 이미 「三國史記」의 잘못을 교정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장차 「三國史記」에 留意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⁴²⁾

셋째, 韓의 學士大夫들이 經傳과 秦漢之書에는 능통하면서도 本國의 서적은 싫어하고 천하게 여 기므로 「三國史記」의 귀함을 알아 교정한다⁴³⁾라고 하는 것 등이다.

本書의 跋文에는 교정의 구체적 예가 몇가지 예시되어 있는데 교정의 방향은 대체로 내용의 補正 에 주력한 것이다.⁴⁴⁾

한편, 창강은 1917년에 「新高麗史」라는 書名으로 「高麗史」를 校正하였다고 하나 현재까지 전해 지지는 않고 있다.

2) 傳記類

「崧陽耆舊傳」과 「重編韓代崧陽耆舊傳」은 창강이 저술한 전기류의 史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다. 「崧陽耆舊傳」은 1884년에 저술하여 1896년에 初刊, 1910년에 再刊된 것으로서 고려말로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開城에서 살았던 대표적 인물들의 詩와 傳을 모은 것이다. 이 책은 金弘集이 창강을 編 史局 主事로 발탁하는 계기가 될만큼 史才를 발휘한 것이었다.

「重編韓代崧陽耆舊傳」은 「崧陽耆舊傳」 가운데 傳만을 모아 1920년 翰墨林書局에서 2卷 1冊으로 간행되었는데, 學行·文詞·忠義·隱逸·循良·孝友·任恤·奇節·武勇·技術 등의 대표적 인물 과 孝婦·烈女 등 총 69명의 행적을 기술하고 있다.

이 이외에 창강의 문집인 「合刊詔獲堂集」과 「借樹亭雜收」에는 黃玪, 安重根 등 19명의 전기가 실 려 있다.

1870년대로부터 1920년에 걸쳐 쓰여진 창강의 이러한 전기류 서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주 목된다.

40) 「校正三國史記」, 權徐二氏三國史詆說辨(金澤榮全集 卷6 所收), p. 13.

41) 「校正三國史記」, 答李明集論三國史校刊事書, p. 9.

42) 同上

43) 「校正三國史記」, 序, pp. 7~8.

44) 「校正三國史記」, 跋, pp. 589~592.

첫째, 되도록 정확하고 많은 기록을 후세에 남기고자 하는 창강의 역사가로서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다. 창강은 이들 전기를 쓰면서 一代의 바른 역사는 金櫃石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만이 아니라 野史와 家史를 갖추어야 그 진실을 얻을 수 있다⁴⁵⁾라고 하는 생각에서 널리 자료를 모으고 여러 차례 현지 답사를 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둘째, 傳記 대상 인물의 폭이 상당히 넓다. 창강 當代의 인물로는 文人·義士·烈士 등 비교적 저명한 인물들을 택하였으나, 前時代의 인물에는 名士뿐 아니라 名唱, 名妓를 비롯하여 특이한 행동이나 재질을 발휘한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세째, 開城 지방에 대한 강한 애착심이 발휘되어 있다. 조선 시대에 소외당한 개성 출신으로서의 창강의 지방의식은 「崧陽耆舊傳」 등의 題名이나, 傳記 대상 인물의 선정, 내용 서술 등 곳곳에 나타나 있다.

Ⅲ. 滄江의 歷史認識

本稿의 Ⅱ. 滄江의 歷史敘述에서는 창강이 저술한 중요한 역사서에 대하여 역사 서술의 경위 및 동기, 내용 구성 및 체재, 내용상의 특징 등을 각 사서별로 검토하여 보았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각 사서별로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여 고대사·고려사·조선사 인식에서 나타난 창강의 韓國史認識의 諸特徵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창강의 古代史認識에서 주목되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의 고대사를 檀君→箕子→馬韓→三國(無正統)→統一新羅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대사 체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李瀾이 제기하고 安鼎福이 발전시킨 三韓正統論⁴⁶⁾을 계승한 것이다. 馬韓을 정통으로 하는 이러한 인식하에서 上古史를 檀君보다 箕子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三國 초기의 역사를 馬韓에 예속시켰으며, 無正統의 시기인 삼국시대에 駕洛國을 삼국과 대등한 독립국가로 파악한 것이다.

둘째, 적극적인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통하여 古代史認識의 상한과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즉 廣開土大王碑나 眞興王巡狩碑⁴⁷⁾와 같은 金石文 자료를 활용하고, 箕子朝鮮·馬韓의 世系를 밝히는 데 「先王遺事記」와 韓氏·奇氏의 家譜를 참고하며, 駕洛國·渤海國에 관한 先學이나 中國·日本의 기록을 활용하는 등, 사료 비판에는 문제점이 있지만 창강은 되도록 많은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고대사의 상한을 높이고 폭을 넓히고자 노력하였다.

세째, 古代史認識의 폭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특히 渤海國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다. 창강은 발해사를 우리 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그 강역과 역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통일신라와 고려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⁴⁸⁾ 발해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丁若鏞·柳得恭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며, 민족적 시련기를 맞아 우리 역사를 과시하고자 하는 민

45) 金澤榮, 「重編韓代崧陽耆舊傳」, 原序(金澤榮全集 卷5 所收), p. 529.

46) 李萬烈, 17·8세기의 史書와 古代史認識(韓國史研究 10, 1974), pp. 115~116.

47) 「韓國歷代小史」卷6, 三國紀, p. 248에는 黃草嶺의 眞興王巡狩碑를 발견하게된 경위와 함께 관독이 가능한 30字를 소개하고 있다.

48) 本稿 Ⅱ-1-3) 참조.

족의식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창강의 高麗史認識을 살펴보면, 그가 개성출신으로서 대대로 고려의 후예라는 강한 유민의식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歷史輯略」이나 「韓國歷代小史」의 기사는 별로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歷史輯略」의 高麗末 禑王 이후의 기사는 朝鮮 建國의 합리화를 위하여 많이 윤색되어 있다.⁴⁹⁾ 이것은 「歷史輯略」의 凡例에 高麗紀는 본래 「麗史提綱」에 근거하였으며, 「高麗史」·「東國通鑑」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⁵⁰⁾고 하였듯이 조선시대의 性理學의 性向을 가진 史家들에 의해 쓰여진 史書에 너무 많이 의지하여 고려사를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강의 고려사에 대한 호의적 인식은 「崧陽耆舊傳」·「重編韓代崧陽耆舊傳」·「紅蓼志」 등의 저술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韓史繫」도 부분적으로 고려의 후예로서 개성 출신이라는 지방의식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⁵¹⁾

창강의 朝鮮史認識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 전반적으로 매우 비판적이라는 사실이다. 「韓史繫」의 太祖·太宗·世祖·成宗·宣祖·英祖를 비롯한 역대 국왕에 대한 기사와 黨爭에 관한 기사 등에서 볼 수 있는 신랄한 비판은 종래의 다른 어떤 사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것이다.⁵²⁾ 이러한 太祖 이하의 先王들과 黨爭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韓史繫」의 출간 이후 國內 儒林의 심한 찬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⁵³⁾ 朝鮮史에 대한 창강의 비판적 인식은 그가 고려의 후예로서 강한 유민의식을 지닌 때문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의 史官을 역임한 그가 亡國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족적 입장에서 국권 상실의 경위와 책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했으리라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擧實直書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창강은 無史之國이며 黨爭으로 인하여 매사에 공정하지 못한 조선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록하기 위하여 直書의 원칙을 고수하였으며, 그것이 조선사 전반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나타난 것이다. 창강의 이러한 입장은 太祖의 篡奪을 기록한데 대한 國內 儒林의 항의에 대한 확고한 반응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⁵⁴⁾ 「韓史繫」·「韓國歷代小史」의 卷尾에 각 黨人의 성명을 附記하고 있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49) 同上.

50) 「歷史輯略」, 凡例, pp. 11~12.

是書高麗紀 本據麗史提綱 既而以高麗史東國通鑑二書旁證 則年月人名等類 多有錯誤 故更據二書 以收潤 并正其誤焉.

51) 崔憲珠, 前揭, 滄江 金澤榮 研究, p. 121.

52) 本稿 II - 2 - 3) 참조.

53) 滄江의 「韓史繫」에 대한 國內 儒林의 대표적인 반박서로서 「韓史繫辨」이 있다. 이 책은 1924년 韓興教·孟輔淳을 비롯한 101명의 연서로 儒林總部에서 간행된 것으로서 「韓史繫」의 내용을 조목별로 반박하고 있다.

54) 金澤榮, 「借樹亭雜收」 卷4, 乙丑文錄(金澤榮全集 卷2 所收), pp. 597~598.

既刊 漢陽谷城諸儒 見而罵之曰 金澤榮非李氏臣乎 奈何不諱 因并舉其年月姓名錯悞之類 以聲討之 澤榮以爲諸儒林 獨不讀公羊穀梁二氏之春秋乎 又不聞韓朝名儒名臣 是元氏秘史者乎 不之變屈.

Ⅳ. 結 語

韓末의 대표적 文人이자 歷史家였던 滄江 金澤榮은 격동과 시련의 한 시대를 살면서 자주·자강 의식의 고취와 민족 문화 기록의 보존이라는 목적에서 많은 역사서를 저술하였다. 開城에서 출생하고 성장한 그의 역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高麗의 후예로서 강렬한 遺民意識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생각되며, 甲午改革 이후 學部에 근무하는 가운데 역사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면서 역사와 시국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였고, 일제의 침략과 국권의 상실을 경험하면서 역사서의 저술을 學生의 課業으로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國內와 亡命地 中國에서의 滄江의 역사 서술과 역사 인식에 대하여 이제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歷史輯略」은 滄江이 學部에 근무하면서 初學者를 위한 간략한 本國史의 필요성을 느껴 저술한 책이다. 천하 대세의 새로운 변화를 인식하고 자주·자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 오류와 편견이 없는 올바른 역사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동기에서 완성된 이 책은 開化期의 대표적 역사 교과서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檀君朝鮮으로부터 高麗末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이 책은 그의 다른 通史類의 史書들과 마찬가지로 編年體로 서술되어 있으며, 古代史의 三韓正統論의 인식, 사실의 논증에 주력한 많은 수의 史論, 駕洛國·渤海國의 강조 등이 주목된다.

「韓史纂」은 滄江이 중국 망명 후 前職 史官으로서 올바른 역사 기록을 남겨야 할 책임감을 느끼면서 黨爭으로 無史之國이 된 朝鮮의 역사를 공정하게 서술하고자 한 것이다. 그에 따라 朝鮮史 전 반에 걸쳐 매우 비판적인 관점에서의 서술이 두드러지며, 史論도 「歷史輯略」과 달리 주관적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 朝鮮史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서술은 이 책의 출간 후 國內 儒林의 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그가 地方意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하기도 하였다.

「韓國歷代小史」는 高麗 이전은 「歷史輯略」, 朝鮮은 「韓史纂」을大本으로 하여 완성한 것으로서 결국 檀君朝鮮으로부터 韓末에 이르기까지의 전 역사를 체계화한 것이다. 서술 형식과 내용은 대체로 앞의 두 史書와 大同小異하나 「歷史輯略」의 간행 후 새로운 자료를 입수하여 수정·보완한 관계로 高麗 이전의 역사에는 비교적 내용의 변화가 많다.

그 밖에 滄江이 저술한 많은 史書들 가운데 「校正 三國史記」는 自國史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올바른 역사서의 편찬에 대한 열의에서 「三國史記」의 내용을 보정한 것이며, 「崧陽耆舊傳」등의 傳記類는 되도록 많은 기록을 후세에 남기겠다고 하는 책임 의식과 開城에 대한 애착심에서 쓰여진 것으로서 현지답사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서술 대상 인물의 폭을 크게 넓힌 점 등이 주목된다.

이어서 앞서의 滄江의 歷史敘述에서 개별적 史書의 검토를 통하여 단편적으로 나타난 滄江의 歷史認識을 시대별로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滄江의 古代史認識에서 주목되는 점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古代史를 檀君朝鮮—箕子朝鮮—馬韓—(三國)—統一新羅로 이어지는 체계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은 李瀆·安鼎福 등 實學者들의 三韓

正統論을 계승한 것이다. 둘째로 金石文·海外資料 등 폭 넓은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통하여 古代史認識의 상한과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渤海의 역사와 영토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滄江의 高麗史에 대한 認識에서는 그가 고려사 서술을 주로 朝鮮時代의 性理學的 성향을 가진 역사가들의 史書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독특한 입장을 나타내기 보다는 오히려 朝鮮 건국의 합리화를 위해 윤색된 측면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韓國歷代小史」의 高麗 관계 기사는 그런 점에서 많이 수정되고 있으며, 傳記類·志類 등의 저술에는 高麗史에 대한 호의적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滄江의 朝鮮史에 대한 認識에서는 朝鮮史 전반에 걸친 비판적 인식이 주목된다. 太祖를 비롯한 역대 국왕과 당쟁 등에 대한 신랄한 비판은 같은 시기의 다른 史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것은 無史之國으로 매사에 공정하지 못한 朝鮮史의 시비를 분명히 하는 한편, 亡國의 경위와 책임을 밝히고자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滄江의 歷史敘述과 歷史認識에 관한 이상의 고찰에서 볼 때에 滄江은 전통적 교육을 받은 文人으로서 격동하는 韓末의 시대적 상황하에서 역사서의 저술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민족적 시련기를 맞아 역사서를 통한 자주·자강의식의 고취와 민족 문화 기록의 보존을 목적으로한 그의 歷史敘述은 우리 역사의 체계화, 고대사의 상한과 폭의 확대, 역사서술 대상 인물의 폭 확대, 조선사에 대한 반성과 비판적인 인식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滄江의 歷史認識은 다분히 實學者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三韓正統論의 계승이나 실증적 역사서술 방법의 도입, 그리고 실제로 實學者들의 저술이나 사론을 다수 인용하고 있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滄江의 史學은 實學的 歷史認識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의 시대적 상황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滄江의 史學은 크게 보아 아직도 傳統史學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으며, 몇가지 긍정적 발전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하였으나 왕조사 중심의 編年體 敘述 방법이나 사료 비판의 문제점 등 近代史學으로 移行해 가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滄江 金澤榮은 우리나라의 역사학이 傳統史學으로부터 近代史學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에 활약한 마지막 傳統史家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On The Study of Kim Taek-yǒng's Writings of History

Kim Hang-ku

Kim Taek-yǒng(1850-1927) was one of the famous historians who met with the severest reversal and the bitterest trials in Korean history. In reference to the domestic situation of that period, the Korean society was in the throes of the break down of feudalism and the movement into modern society, and in view of outside circumstances it was also suffering from the armed aggression of Japan as well as other strong powers and from the loss of national rights attendant to it.

Kim Taek-yǒng, who was a prominent writer as well as an outstanding historian, wrote many Korean history books to inspire a consciousness of sovereign independence and to conserve the national culture through his works. The masterpieces among his works are 'Yǒksachipyak'(歷史輯略), 'Hansakyung'(韓史緊), and 'Hankukyǒktaesosa'(韓國歷代小史). They cover, respectively, the ancient period to Koryo, Chosun, and the ancient period to Chosun.

'Hansakyung' and 'Hankukyǒktaesosa' were written and published in China where he stayed for a while as a political refugee. His works, which seem to be influenced by 'Silhak'(實學) of late Chosun, still show not only many traditional elements but also partial modern characteristics.

It may be given as a conclusion that Kim Taek-yǒng was then a figur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between the traditional and modern history.